



워싱턴주 페더럴웨이 한인회

FEDERAL WAY KOREAN AMERICAN ASSOCIATION, WA

P. O. BOX 3093 FEDERAL WAY, WA 98063

오늘은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주권을 회복하고 자유를 다시 찾은 광복 76 주년이 되는 감격의 날입니다.

1910년 한일병합조약으로 일제 식민지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어 선택은 분명 잘 못된 역사의식입니다.

1910년에 체결되었다는 한일병합조약은 국제법으로도 정당성이 결여된 강제적이고 모략과 일방적인 탐욕으로 자행된 침탈행위로 "일제강점기" 이고 "일본제국주의의 강제점령기" 입니다.

요즘은 학교에서도 역사교육을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지금 이 시간에도 중국의 동북공정문제 그리고 일본의 일제강점기에 행하였던 위안부와 강제징용, 독도문제 등을 통해 잘 보여주듯이 중국은 역사를 왜곡하여 발해를 중국의 당나라 부속지역으로 편입을 시키고 일본은 위안부와 강제징용문제를 1965년 한일협정으로 완전히 해결하였고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역사를 알지 못하고 방관하고 있는 한 이러한 문제는 계속 반복이 될 것입니다. 역사는 과거의 있었던 일이 아닌 오늘을 통해 내일까지도 계속 연결되는 진행형이기에 정당한 대응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역사를 교육하여야 하며 특히 내일을 짊어지고 갈 젊은이들은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1945년 해방을 맞기까지 우리 선조들은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항거하고 싸워 왔으며 이러한 고귀한 희생을 대가로 대한민국은 세워졌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항일을 하였던 독립투사의 가족들은 가난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생활을 계속하였고 매국행위를 한 친일 후손들은 부귀영화를 계속 누리며 살고 있었던 것이 불행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오직 애국의 마음으로 희생한 독립투사와 그 가족들을 기억하지 않으면 누가 그들의 고귀한 희생을 위로 할 수 있을까요?

독립을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어렵게 맞은 독립인데 지금은 남, 북으로 한반도가 갈라져 있습니다.

정치와 이념의 갈등으로 오랜 시간을 우리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통해 일본과 중국의 역사문제의 갈등을 함께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가는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역사관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은 한 단계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역할을 다하여 화해와 평화 그리고 통일과 번영의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주역이 될 것이며 우리 한반도는 축복받은 땅으로 부흥할 것입니다.

76년 전의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그날의 감격을 다시 한번 오늘도 생각하며 COVID-19 에서도 속히 해방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2021년 8월 15일

워싱턴주 페더럴웨이한인회

회장 김영민 이사장 김행숙

